

헤겔이 본 哲學과 時代의 關係(一)

安浩相

머리말

헤겔은 哲學과 時代의 關係에 對한 問題를 自己의 著書들 가운데서 特別히 仔細히 考察한데는 업다. 그러타고 이 問題가 결코 헤겔의 思想에서 全然남 된것이거나, 或은 알려지지 안흔 것은 아니다. 이 問題는 그 「理性和 現實의 問題」를 더부러 헤겔의 思想에서 언제든지 늘 사라 잇었다. 그럼으로 우리는 헤겔의 著書들 가운데서 이 問題의 存在만 차저 낼 수가 잇다. 그러나 이 問題가 마침내 「理性和 現實의 問題」와 密接한 關係를 가졌슴으로서 먼저 理性和 現實의 關係를 考察치안코서 이 問題를 考察함은 順序的이 아니오. 또 그로조차 만흔 不便과 어려움을 보게 된다. 이러한 理由로서 이 論文가운데서 어셔한 곳은 잘 立證(論證)되지 못한 것은 筆者 또한 잘 認識하며 또 거게 대해선 꼭 遺憾으로 안다.

이 論文에서 참고한 헤겔著書들 중에 哲學史만 一八三三年에 出版된 미헬레트의 版이오. 그 다른 것은 다 一九二三年 以後에 된 파손의 版이다. 이 論文中 略表는 아래와 갓다.

大 論理學 第 二卷=大論二, 哲學的 百科全書=百科, 法哲學=法哲, 歷史哲學=歷哲, 哲學史=哲史.

×

헤겔은 哲學의 對象은 「絶對的 精神」이오. 「永遠한 理性」이라고 했다. 이로 말미 암야 문듯 헤겔의 哲學은 現實을 眈스며, 또 現實을 모르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헤겔의 哲學은 決코 現實을 무시하며 否認함에서 理性和 精神을 저의 對象을 삼음이 아니라 도리어 現實의 本體와 또 참된 것을 認識해서 現實의 存在의 價値와 價値의 存在를 立證코저 함으로서 이다. 웨그러나 하면 헤겔에선 理性은 現實의 理由며 眞理임으로써 理性을 理解치 못하고는 現實의 本質을 理解치 못한 것이다. 現實의 참된 理解가 못되

는 새문이다. 그럼으로 헤겔의 생각엔 「哲學은 理性것의 解得임으로서 곧 現時것의 理解며 생각이오. 또 現實것의 理解며 생각이다」(法哲, 一三頁) 헤겔은 다시 말하기를 「있는 것 그것을 理解코저함이 哲學의 課題이다. 웨그러나 하면 있는 것은 그것은 理性인 새문이다」(法哲, 一五頁)이것을 보면 理性과 現實을 決코 棼여노코 볼 수가 업다. 理性이 업는 데선 現實조차 업슬 것이오. 또 이것이 업는 데선 저것조차 업는 法이다. 이와 가티 現實과 理性이 「갈뎡 關係」을 가진 것을 立證하며 또 認識함은 오즉 哲學의 課題이오. 또 哲學은 理性을 現實로 더부터 「和解시키며」또 「거긔으로 보이는 現實것을 그 理性것으로 換形시킨다」고 헤겔은 말하였다.(歷哲一, 五五頁)

理性은 무슨 權能으로서 現實의 可能制約이 되며 現實은 무슨 理由로서 理性의 必然的 結果가 되는가 하는데 對해선 여기어 자세히 말하고자 아니 한다. 이것을 자세히 살핌은 이 論文의 課題가 아니오. 오히려 理性과 現實一般의 關係를 論究함에 속한 것이다. 여기선 다만 理性은 現實을 制約하는 者요. 現實은 制約해이는 者인것을 알면 그만이다. 理性과 現實의 關係를 한번 根本的으로 考察하여 알고저 하는 분께 참고적으로 다음에 헤겔의 著書들중에 중요한 몇 곳을 紹介하고자 한다. 大 論理學 第二卷, 主觀的 論理學 第一章 概念論(二一三頁至二六四頁)第三章 理念論(四〇六—四一二頁)哲學的 百科全書(二一三—二五二節)

우에서 哲學은 理性것의 解得으로서 곧 「現時것」과 「現實것」의 理解라고 하였스즉 哲學은 全現實界와 또 그로조차 時代에 대해서 必然的 關係를 가진 것이 은연중 나타났다. 두자의 關係를 헤겔은 다음에서 더 자세히 말하였다. 「哲學은 時代의 精神으로서 제 時代의 思想이다」(哲史, 六八頁)뿐 만 아니라, 「哲學은 제의時代로 더부터다 갖다 哲學은 제의時代를 썬나지 못한다 그는 제의 時代의 本體것의 認識이다」(哲史, 六九頁) 「그 어느 한 哲學이 自己의 現時의 世界를 썬어난(超越한)다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고 無知한 말이다」 「個體는 제 時代의 아들(子息)로서 제 時代를 참으로 썬어나지 못함이 제의가죽(皮)을 버서 버리지 못함과 갖다」(法哲, 一五頁, 哲史六九頁)헤겔은 어셔한 意味에서 個人을 時代의 아들이라고 하였는가는 이 論文의 스테서 明白히 될 것이다.